

책 읽을 시간 없다면 ... 이젠 듣자

■ 오디오북 전문 출판사 '내림과 울림' 대표 신상석·정수민 부부

#1. 주차장을 빙글게 하는 출퇴근 도로. 짜증과 답답함을 느끼려는 찰나, 차 안에 <금강경> 한 구절이 울려 퍼진다.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로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2. 돋보기 안경을 쓰고도 책을 읽기 힘든 노 보살님. 며칠 전 머리가 섰을 때 이프를 틀자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술술 풀려나온다. 뜻도 모른 채 독송하던 <금강경>의 뜻풀이를 듣자 한층 더 신심이 솟아난다.

오디오북 전문 출판사 '내림과 울림'이 <비움의 지혜 금강경> 오디오북을 펴냈다. 흔히 '읽어 주는 책'이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는 오디오북은 기존의 책 내용을 낭독해 녹음한 것으로, 앞의 두 예에서처럼 책 읽기에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이나 바쁜 현대인들이 부담 없이 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림과 울림' 발행인 신상석(45)·편집장 정수민(44) 씨 부부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금강경>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게 돼 뿌듯하다"며 <금강경> 오디오북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가 오디오북을 펴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20여년 가까이 IT분야에서 일했던 신 대표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재(賢者)들의 지혜를 소리로 전달해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출판사를 열었다. "2006년까지 동서고금의 고전 100권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겠



오디오북 전문출판사 '내림과 울림'의 발행인 신상석(왼쪽) 씨와 부인 정수민 편집장.

다"는 야심찬 의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대학·중용> <예언자> 등을 펴냈고, 판매수익금의 1%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흔히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오디오북은 고전의 지혜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하는 시간에 듣다 보면 공부의 저절로 될 것입니다."

<비움의 지혜 금강경>은 CD 2장(혹은 테이프 2장)과 소책자로 이뤄져 있다. CD 1에는 전문 성우들이 낭독한 <금강경> 번역본을, CD 2에는 용어해



비움의 지혜 금강경 신원봉 옮김 전인배 채진영 | 내림과 울림 CD 1만5천원 | 테이프 1만2천원

설을 담았다. 대화체로 이루어진 <금강경>의 맛을 그대로 살렸고, '여시아문', '기원정사' 등의 용어도 관련 일화와 함께 소개한다. 소책자에서는 <금강경> 원문을 볼 수 있다.

<금강경> 번역은 영산대 신원봉 교수가 맡았고 KBS 성우 전인배 채진영 씨가 낭독했다. 배경음악으로는 목탁 소리 대신 '오카리나'라고 불리는 훌리리 연주곡을 사용해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숫타니파타> <법구경> <어린이 불교동화> 등 다양한 오디오북을 펴낼 계획"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함께 수지독송할 수 있는 경전 오디오북 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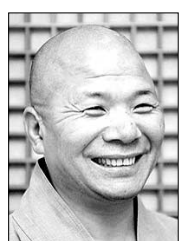
새로운 책

■ <갯바위 부처님 우리 곁에 오시다> (장적 스님 지음, 선본사, 1만 원) = 前 선본사 주지 장적 스님(안흥사 주지)이 쓴 선본사 종합 안내서. 책에는 갯바위 부처님에 얽힌 역사 신앙과 신도들의 '소원성취 체험록', 고문헌과 사진으로 보는 갯바위 도량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장적 스님이 체정한 설화를 바탕으로 소설가 이수상 씨가 쓴 '갯바위 역사여행을 조성 일대기'도 읽을 수 있다. 스님은 "갯바위 역사여행부처님께 기도하고 불공을 올리는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 스님 지음, 무한, 1만원) = 인터넷에서 '안산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법상 스님의 <실천하는 수행자를 위한 반야심경 대강좌>가 재출간됐다. 직접 찍은 사진을 덧붙이고 각 장의 내용도 다듬었다. 스님은 현재 인터넷 '목탁소리' (www.moktaksori.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라> 등이 있다.

■ <나는 매일 아침 지렁이에겐 부를 묻는다> (허병섭의 지음, 용기장이, 9천원) = 누구나 한 번씩 꿈꿔보는 농촌생활. 그러나 막상 '현실'로서의 귀농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책에는 동화작가 권경생, 산청 간디학교 교장 양희규, 전국귀농운동본부장 이병철 씨 등 이미 시골살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 담겨 있다. 상상이 아닌 '생활'로서의 시골살이는 어떠한가, 그 참의미는 무엇인지 들을 수 있다.

"스님, 돈 좀 꾸주세요"



저녁 무렵, 동네 공원을 찾은 지묵 스님. 술 취한 청년이 다가와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꾸어 달라"고 청하자 스님은 선뜻 만 원을 건네준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뒤 다시 공원을 찾은 스님에게 그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어두워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님, 만 원을 받으시지요."

갈스기와 방승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지묵 스님이 현대불교 연재물 '스님 이야기' 등 그동안 교계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글 120여 편을 묶어 <스님의 젊음>이란 책으로 펴냈다. 옛 선사들의 일화와 지금 이 순간 어느 산중예선가 구도의 길을 걷고 있을 눈 푸른 남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불암사에 가던 길에 들른 절의 주지실에서 단점을 자고 나서야 주지 스님은 객실에서 잔 사실을 알기도 하고, 얼굴에 결혼식 사회를 맡아 곤욕을 치르기도 하는 등 스님의 수행 일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입가에 퍼지는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스님이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단오 부채전'에 소개했던 부채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즐거움 '달'이다.

현재 불교방송프로그램에서 진행상담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그동안 <나미스테> <불주르 길상입니다> <죽비 깎는 아침> 등의 책을 펴냈으며, 인터넷동아리 '정년불교 우리 사랑'의 지도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스님의 젊음 지묵 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 1만원

초보불자 불교용어 길라잡이

조계종 포교연구과장을 지낸 김경호 씨가 불교 용어 해설집을 펴냈다. <절이 좋아 산에 가네>는 '절이 좋아' 사찰에 가지만, 막상 인연이니 서원, 율령, 도량식, 대비 등 낯선 용어를 접하다 보면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초보불자들을 위한 책이다.

하지만 책은 백과사전식의 단순한 용어 해설에 그치지 않는다. 각 용어를 설명하는 72개의 장은 한 편의 에세이처럼 읽힌다. 1장 '구도의 길'에서는 안거·만행·사경·율령·장좌불와 등에 담긴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 정신을 설명한다. 2장 '공간에 담긴 정신'은 일주문과 당간지주, 대웅전 등 산사의 조형물들이 지닌 의미를, 3장 '생활 속의 하심'은 발우와 가사, 삭발, 다도, 탁발 등 승가의 일상 생활 풍경을 보여준다. 4장 '불화로 본 부처님의 일생'에서는 십우도와 팔상도를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짚어보고, 5장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불교의 삶과 죽음관 등 불교의 세계관을 두루 설명하고 있다.

여행전문가 4인이 뽑은 이곳!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서점가에는 '여행안내서'가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수많은 책 중에서 '나에게 맞는 책'을 찾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내 마음 속 꼭꼭 숨겨둔 여행지>는 여행전문가 네 명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책이다.

이 중 레저 주간지 <Weekly FRIDAY> 기자인 유희상 씨의 '절담 너머 풍경'에서는 남양주 수종사와 하동 쌍계사, 청도 운문사, 해남 미황사(사진) 등 산사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수종사 밑 두물머리에서는 언제

물안개를 볼 수 있는지, 선암사에 가면 어디서 차를 마실 수 있는지 등 놓치기 쉬운 여행 노하우를 챙겨볼 수 있다.

유 씨는 "절집 여행은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듯 마음을 다스리는 매력"이라고 말한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문집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출로 시는 즐거움 | 법정 스님 | 샘터 |
| 2 | 인연법과 마음공부 | 해국 스님 | 효림 |
| 3 |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 텐진 빠모 | 열림원 |
| 4 | 스님이야기 | 지묵 스님의 | 여시아문 |
| 5 |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 청화 스님 | 이타아침 |
| 6 | 가장 행복한 공부 | 청화 스님 | 시공사 |
| 7 | Opening the Eye | 성철 스님 | 김영사 |
| 8 | 예세초콜 | 예세초콜 | 김영사 |
| 9 |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 이용범 | 수희재 |
| 10 | 하룻밤에 읽는 불교 | 소운 스님 | 랜덤하우스중앙 |

도서 안내: (02) 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체증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단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본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마음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구름 뒤 저편에는 항상 맑고 깨끗한 파란 하늘이 있다.

구름뒤 파란하늘

정여스님 「구름뒤 파란하늘 1,2」 출판기념회

- 일 시: 2004년 8월 26일 오후 1시30분
- 장 소: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문의전화: (051)853-5486

함 지체든 내 자신의 일, 혹은 지체든 내 자신의 일, 나 자신을 주정 사람은 오직 나 자신 뿐

